

## 11. 호세아 11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 들어가기

오늘 살펴보는 호세아 11 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지를 깨우쳐 주시며,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고 클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파멸 당한 ‘아드마’와 ‘스보임’ 성읍처럼 멸망 당하지는 않을 것이란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 1.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대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1-4 절)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1 절)

- 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고 표현!
- ②. 특별히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이라 부르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저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음!

- 출애굽기 4 장 22-23 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 이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시며 저들을 위해 싸우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음!!
-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심!!

③. 참고로 1 절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은 또한 이차적으로는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하신 아기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도 해석!!

- 마태복음 2 장 14-21 절

-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
- 19.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 20.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 21.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  
=>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함!

2) 그럼 자신들을 아들로 대하시며 출애굽 시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답하였나요? (2 절)

- ①. 선지자들을 통해 부를수록 저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함!
- ②. 바알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향을 피우며 섬김!!

- 골로새서 3 장 1-3 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

3)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두 팔로 안아 키우시며, 상처를 치유하고 고쳤으나,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3 절)

- 곧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시며, 율법과 말씀을 통해 저들을 지도하셨고, 사랑과 인내와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신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

4)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다고 말씀하셨나요? (4 절)

- ①.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음!  
 => 곧 짐승대하듯 강제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자세로 저들을 대하시며 이끌어 주셨다는 것!!
- ②.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이끄셨음!  
 => 멍에를 씌우는 것은 노동과 고통을 의미하지만, 벗기는 것은 평안과 쉼을 의미!  
 => 곧 항상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며 이끄신 것!!
- ③.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시며’ 이끄셨음!  
 => 특별히 ‘그들 앞에 먹을 두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리를 굽혀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먹여 주셨다는 뜻! => 참고로 CEV. = ‘I bent down to feed them’ 이라 번역.  
 =>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

**2.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한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징계 (5-7 절)**

1) 칼이(전쟁) 이스라엘 모든 도시를 칠 것이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앗수르 임금의 통치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5-6 절)

- 우선 5 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이란 표현은, ‘애굽에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란 번역이 더 맞는 표현일 듯..
- 아무튼 5-6 절의 중심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앗수르가 이스라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할 것이란 사실!!

2) 특별히 이런 상황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7 절)

- '위에 계신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가리킨 말!!
  -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 중에 '일어나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 선언하심!
  -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찾고, 세상의 도움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보임!!

3.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8-12 절)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고 고백! (8 절)

- '내가 어찌 너를~' 이란 표현이 8 절 한 구절에서 4 번씩이나 반복!!
- 북이스라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 지를 엿볼 수 있고, 비록 잘못하여 징계받을 수 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됨!!

②. 징계를 받아도 '아드마'나 '스보임' 성읍들처럼은 하지 않으실 것! (8 절)

-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마을들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할 때 함께 유향과 불로 멸망 당한 성읍이었음. (신 29:23)

➢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는?

- A.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시기 때문!! (8 절)
- B.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 (9 절)
  - => 하나님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언약을 파괴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며 행하시는 거룩하신 분!!
  - => 뿐만 아니라 그는 진노 중에도 항상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분!!

③. 남은 자들을 애굽에서 새처럼, 앗수르에서 비둘기처럼 돌아오게 하실 것! (10-11 절)

- 특별히 10 절 주목!!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어 오되'
- 이 표현은 마치 어머 사자가 새끼를 부르는 장면을 떠오르게 함!!
-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시며 어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부르듯이 흩어진 백성들을 부르시면, 저들은 새처럼 빨리 날아오게 될 것이란 말씀!!
-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앗수르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자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

2)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시며 탄식하셨고, 유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